

2020  
09

#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KAM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4층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 CONTENTS

### 02 COVER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 03 CONTEST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상병리사 생활수기 공모전

### 05 KAMT NEWS

장인호 협회장, 서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자원봉사

### 07 NEWS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의사단체 집단 휴진 철회 촉구

### 09 COLUMN

진단검사 및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영문

### 제452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충일화학
- 대한민국 전통 유전자분석 전문기업, 코젠바이오텍
- Bright Technology, right decision. 브라이텍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건한, 이우주, 하성일  
기자 최현빈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전환에 대한 안내의 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 여러분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9일~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를 코로나19 재확산 및 집단감염의 우려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행은 물론 지난 7월에 결정했던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심사숙고 끝에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참가자 및 발표자 여러분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조직위원회에서는 학술대회 기간 각 학술 프로그램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회원 간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학술대회 전환에 따른 자세한 조치 및 안내는 추후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 및 메시지를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팬데믹 시대를 대응하는  
임상병리사의 역할  
*Only the beginning*

**KAM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www.kamt.or.kr



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KAMT 2020**  
**On-line** 58th Congress of KAMT

일시 2020년 10. 9(금)~10(토)

온라인 학술대회 진행



주최 |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 팬데믹 시대를 대응하는 임상병리사

## 2020년 제 58회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10월 09일 금요일

시간	Channel 1	Channel 2	시간
09 ~ 10	주제특강. 팬데믹 시대의 역사 - 대전대학교 주세익 교수	분과학회 심포지엄	09 ~ 10
10 ~ 11	주제특강II.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 혜전대학교 이동섭 교수		10 ~ 11
11 ~ 12	주제심포지엄I. 코로나검사 방법 - 제주대학교병원 박현철		11 ~ 12
12 ~ 12 : 30	개회식		12 ~ 12 : 30
12 : 30 ~ 13	특별강연. 상대가치점수란? - 동의대학교 임용 교수	청년취업지원(입사 TIP)	12 : 30 ~ 13
13 ~ 14	주제심포지엄II. 보호구의 종류, 보호구, 마스크, Lab Design	외부특강 - 정석훈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13 ~ 14
14 ~ 15	주제심포지엄III. 검체 안전 지침 가이드라인 서울아산병원 임승택		14 ~ 15
15 ~ 16	필수교육 (자살예방, 양성평등, 환자인식개선)		15 ~ 16
16 ~ 18	정도관리 학술세션 : 외부정도관리의 해석		16 ~ 18

10월 10일 토요일

시간	Channel 1	Channel 2	시간
09 ~ 10	특별강연II. 북한의 의료체계(감염병 대응) - 삼성서울병원 구본경 편집위원	청년취업지원(입사 TIP)	09 ~ 10
10 ~ 11	주제심포지엄IV. 코로나 검체 채취방법 및 CDC기준 서울 서대문구보건소 김민호 팀장	분과학회 심포지엄	10 ~ 11
11 ~ 12	감염관리 학술세션 : 병원 감염병 대응기준 - 청주대학교 윤남섭 교수		11 ~ 12
12 ~ 13	특별강연III. 임상병리학 평가원 설립 - 대전대학교 황석연 교수		12 ~ 12 : 30
13 ~ 14	중소병의원 학술세션 : 건진교육 - 중소병원발전위원회		13 ~ 14
14 ~ 15			14 ~ 15
15 ~ 16	필수교육 (자살예방, 양성평등, 환자인식개선)		15 ~ 16
16 ~ 18	정도관리 학술세션 : 외부정도관리의 해석		16 ~ 18

※ 각 프로그램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연 및 포스터 발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Brightek**  
(주)브라이텍

**(주)브라이텍은  
임상병리사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주)브라이텍  
T: 02-948-8246 F: 02-948-7559 Email: cs.brightek@gmail.com

www.brightek.co.kr

취급 품목

- 미생물(결핵, 그람, 혈액, 세포) 염색기
- 심장 바이오마커 Soluble ST2
- 탁상용 고속 원심분리기
- 삼투압 측정기 등

협력사

- (주)성현메디텍
- 대왕약품
- 동방메디텍
- (주)동성메디칼
- 프라임메디텍
- 길랩
- (주)하메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상병리사 생활수기 공모전



## 공모주제

- 코로나19와 관련한 후기 및 위험한 순간
-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화된 일상
- 코로나19 감염체험사례(본인 및 가족 등)
- 그 외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코로나19 관련 내용

## 응모자격

- 임상병리사

## 응모기간

- 접수: 2020.9.1.(화) ~ 2020.10.31.(토) 24:00까지
- 발표: 2020년 11월 하순,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통보

## 관련문의

- 02-3291-5435 (내선 2번)

## 참여방법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협회 홈페이지 > 협회소개 > 공지사항)
- 우편: (028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41, 4층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무국 전산홍보팀 앞
- 전자우편: kamtreporter@daum.net

## 출품규격

- 수량: 1인 1점(팀·공동작업불가)
- 규격: A4용지 10매 내외, 200자원고지 30매 내외  
(바탕체 13p, 줄간격 160%)

## 제출

- ① 한글(hwp)양식의 참가신청서
  - ② 작품 한글(hwp)파일
  - ③ 활동사진
- ※ 우수상 이상 수상작의 경우 저작권 동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상내역

구분	인원	상금
대상	1명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5명	각 10만원

※제출 작품은 타 공모전에 당선되거나 출판되지 아니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허구의 수기로 밝혀질 경우 수상을 무효 처리함



## 중앙회소식

###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전환

10월 9일, 10일 양일간 열리는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58회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홍주)는 지난 8월 29일 회의를 가진 후 “코로나19 재확산 및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어 제주에서 열리는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는 1962년 협회 출범 이후 매년 한국 및 세계의 임상검사 이슈와 임상병리사 관련 동향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협회의 대표 행사로 발전해왔다.

2020년은 종합학술대회 역사상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회임상병리사회(회장 신영숙) 주관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중순부터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로 조직위원회는 모든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 학술대회로 완전 전환하여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0월 9일, 10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9일 주세익 대전대학교 교수(팬데믹 시대의 역사), 이동섭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바이러스란 무엇인가), 박현철 회원(코로나19 검사 방법) 등이 발표에 나선다. 둘째날인 10일에는 서대문구보건소 김민호 검진팀장 (코로나19 검체 채취방법 및 CDC 기준), 윤남섭 교수(병원 감염병 대응기준) 등이 발표를 진행하며, 이외에도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정도관리 학술세션 및 보건복지부 지정 필수이수과목 등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학술 프로그램이 열린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겼지만, 이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임상병리사들이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는 협회 홈페이지 > 보수교육 > 웹세미나 보수교육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임상병리사,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핵심으로 자리잡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2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해내는 우리나라 진단검사 시스템은 진단검사 실무자인 임상병리사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다. 임상병리사는 코로나19 현장에서 진단검사뿐 아니라 검체 채취 실무자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

결과를 위해 24시간 활약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임상병리사는 보통 진단검사, 병리검사, 생리기능검사 업무에 주로 종사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응급상황에서는 의심환자의 검체 채취 업무도 맡고 있다. 기존엔 의사가 주로 검체 채취를 시행했지만,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선 임상병리사가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 협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많은 임상병리사들이 검체 채취 및 검사 과정에서 불의의 감염 위험이 매우 크지만, 이들은 국가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철야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발빠른 대처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진단키트와 검사법을 위시한 K-방역을 국제 표준으로 급부상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임상병리사들의 피로와 업무도 누적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4개월째 검체 채취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 회원은 “최근엔 검사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 인력 증원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두렵고 힘겹지만 코로나19 최전선에서 K-방역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으며, 현장의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코로나19 안정을 위해 싸우는 만큼 일반 시민들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www.choongil.com

큰 결실로 되어...

좋은 밭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일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CHEMISTRY DxC 880I, DxC 800, AU Series  
IMMUNOASSAY Dxl 800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주)충일화학  
CHOONG IL CHEMICAL, INC.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 제58회 종합학술대회, 오프라인 등록비 및 항공·숙박비 환불해준다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제58회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홍주)는 오프라인으로 등록한 회원들의 참가비와 숙소, 항공권 취소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환불해줄 방침이다.

조직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현장 학술대회 진행이 불투명했지만, 최선을 다해 학회를 준비한다는 취지로 학술대회를 준비해왔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숙소와 항공권을 예약하기 위해 현장 학술대회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조직위원회는 협회 차원에서 회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는 만큼, 기존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신청한 회원들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술대회 등록과 항공, 숙박비를 모두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우선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등록한 회원들은 별도의 변경이나 환불 없이 온라인 학술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온라인 학술대회 시정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8월 중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한 모든 회원들은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환불 받을 수 있다. 수수료 환불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진 양식을 통해 9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직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현장 학술대회 등록으로 인한 피해는 없도록 할 방침이다"라며 "온라인 학술대회에도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장인호 협회장, 서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자원봉사



장인호 협회장이 서울 서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체 채취 자원봉사를 수행했다.

지난 8월 12일 장인호 협회장은 서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검사 부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호흡기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묵묵히 검체 채취를 수행한 장인호 협회장은 "네 시간 동안 선 채로 허리를 굽혀 검체 채취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며 "하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종일 야외에서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값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인호 협회장의 봉사활동은 코로나19 현장에서 분투하는 회원들의 고충을 직접 느끼기 위해 진행됐다. 서대문구보건소 김민호 검진팀장은 "협회장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들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인호 협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우려되는 가운데 협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언제나 현장의 회원들에게 힘을 보태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병리사는 코로나19 K-방역의 최전선에서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검체 채취 및 진단검사 실무자로서 헌신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의료기관 및 검사센터, 유관기관 진단검사실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0.08.01 ~ 08.31

- ▶ 8월 6일: 제1차 제453차 상임이사회가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면담 ▲교부금 지급 ▲2020년도 정책과제, 연구과제 최종 선정 결과 ▲웹세미나 형식 보수교육 개발 ▲병리협보 광고 체결 ▲제58회 종합학술대회 온라인 접수 등의 내용이 보고됐다. 또한 ▲제규정 개정 및 제정 ▲분과학회 회칙 일부개정 ▲시도분과 회칙 표준(안) 제정의 건 등이 논의됐다.
- ▶ 8월 10일: 제58회 종합학술대회 운영분과 회의가 진행됐다. 후원사 온·오프라인 개최 공지, 학회 기간 방역지침의 건 등 제주 종합학술대회 운영과 관련한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 ▶ 8월 15일: 제1차 협회관 가치 제고 추진 TF팀 회의가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협회관 현황 및 TF위원 구성이 보고됐고, 협회관 가치 제고의 제안 배경, 협회관 가치 제고 평가(안)이 발표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 8월 19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웹세미나 기획회의가 진행됐다. 종합학술대회 웹세미나 타임테이블, 웨비나 기획 방안, 시도회 및 분과학회 보수교육 운영방법 등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 ▶ 8월 29일: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원 설립에 필요한 재단 설립절차와 관련 법률이 보고, 논의되었다.
- ▶ 8월 29일: 협회관 대회의실 및 화상으로 제58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제3차 조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술대회 온라인 전환이 논의, 결정되었고, 각 분과별 준비사항들이 보고됐다.

###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0.08.01 ~ 08.31

- ▶ 8월 3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안영희 임상생리학검사학회, 이정현 임상면역검사학회 학회장과 간담회를 진행
- ▶ 8월 5일: 부산시에서 열리는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 간담회에 참석
- ▶ 8월 6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과 면담을 가짐
- ▶ 8월 7일: 경남 창원시에서 경남도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
- ▶ 8월 12일: 서울 서대문구보건소를 방문해 4시간 동안 코로나19 검체 채취 봉사활동 수행
- ▶ 8월 13일: 대전시에서 열리는 대전광역시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과 간담회를 가짐
- ▶ 8월 15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협회관 가치 제고 추진 TF팀 1차 회의를 진행
- ▶ 8월 18일: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도회 및 분과학회 온라인 보수교육·학술대회 설명회를 진행
- ▶ 8월 21일: 경북 경주시 경주컨벤션센터를 방문해 2021년 제59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개최에 관해 답사
- ▶ 8월 26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 간담회에서 간담회 진행
- ▶ 8월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방문해 제6차 의료기사총연합회 회의에 참석,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를 방문해 면담 진행
- ▶ 8월 29일: 화상으로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설명회 진행,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와 제58회 종합학술대회 제3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진행함
- ▶ 8월 31일: 화상으로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

서울시회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학회 지원금 추첨식 진행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이재진)는 지난 7월 24일, 서울시회 2층 강의실에서 2차 상임이사회가 끝난 뒤 2020년도 학회 지원금 추첨식을 가졌다.

학회 지원 대상자는 본회 회비 규정 제5조에 따라 2019년 12월 말까지 회비를 납부한 서울시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한 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해외 학회 당첨 회원 1명은 100만원을 지원받고 국내 학회 당첨 회원 20명은 각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해외 학회 지원금은 강병태(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회원이 당첨의 행운을 맞았고, 국내 학회 지원금은 임유정(서울성모병원), 이가람(건국대학교병원), 홍주은(경희대학교병원), 김신애(나누리병원), 전남준(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원석(삼성서울병원), 김희선(서울대학교병원), 박지원(서울대학교병원), 류화진(서울대학교병원), 김종화(서울아산병원), 최혜영(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김혜윤(씨젠의료재단), 허초희(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박유진(예루살렘정형외과의원), 김은진(우리원헬스케어영상의학과의원), 백한나(은평구보건소), 임세나(제일병원), 이정아(강남성심병원), 임하리(강남성심병원), 박주희(한양대학교병원) 회원이 당첨됐다.

학회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은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회

건강보험청구심사 실기과정 개설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이광우)는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회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청구심사 실기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청구심사 실기과정은 실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보험청구심사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경기도회는 "현장에서 보험청구심사업무를 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회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병원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선착순 접수를 통해 선정된 20명은 국비지원과 경기도회 자체 예산을 통해 전액 무료로 교육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자비로 교육이수를 희망한 9명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현재 7, 8월에 수강신청을 한 회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9월 수강을 신청한 회원들도 교육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은 평일만 주 2회 3시간, 주말만 주 1회 6시간으로 총 6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경기도회 이광우 회장은 "결코 쉽지 않은 커리큘럼이지만 수강 중인 회원들의 좋은 결실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회장, 초청식 경기도제1부시장과 면담 진행

이광우 경기도임상병리사회장은 지난 8월 11일 초청식 경기도 제1부시장의 초청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초청식 부시장은 대한임상병리사회회 60주년 행사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공개적으로 표했다.

이광우 회장은 "협회창립 60주년 행사와 관련해 열리는 2022년 종합학술대회에는 해외참가자 1,500여명, 국내회원 8,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술행사 및 다채로운 볼거리가 많은 뜻깊은 행사에 경기도 차원에서 많은 행정지원과 서비스를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년 대한임상병리사회 협회 시도회·분과학회 보수교육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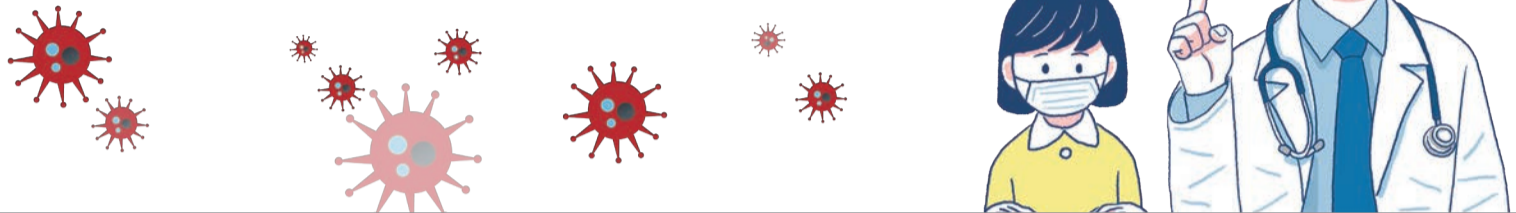
시도회 보수교육(16개 시도회)

시도회 1차 보수교육 : 10.31. (토)    시도회 2차 보수교육 : 11.21. (토)    시도회 3차 보수교육 : 12.12. (토)

		온라인 학술대회 일정	교육시간	필수과목 포함여부
1	조직세포검사학회	2020.10.31.	14:00~18:00	O
2	임상생리검사학회	2020.11.07.	14:00~18:00	X
3	임상화학검사학회	2020.11.14.	14:00~18:00	O
4	임상검사정보학회	2020.11.21.	14:00~18:00	X
5	임상미생물검사학회	2020.11.28.	13:00~19:00	O
6	임상유전검사학회	2020.11.28.	14:00~18:00	X
7	임상면역검사학회	2020.12.05.	14:00~18:00	O
8	조직세포검사학회	2020.12.05.	14:00~18:00	O
9	임상핵의학검사학회	2020.09.26.	10:00~14:20	O
10	임상혈액검사학회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11	임상수혈검사학회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12	공중보건검사학회	미 실시	미 실시	미 실시

※ 정도관리 하이라이트교육은 11월 28일(토요일)에 진행됩니다.

#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의사단체 집단 휴진 철회 촉구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진, 이하 의기총)에서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집단 휴진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

대) 설립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의료정책에 반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기총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번져가는 가운데 집단 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기총에서는 지난 8월 26일 대한안경사협회 대회의실에서 8개 의료기사단체장 모임을 갖고 국민의 생명 볼모로 한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즉각 철회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 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에서는 의사들의 권리와 권한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가 부여한 권한임을 언급하며 의사 파업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차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 행위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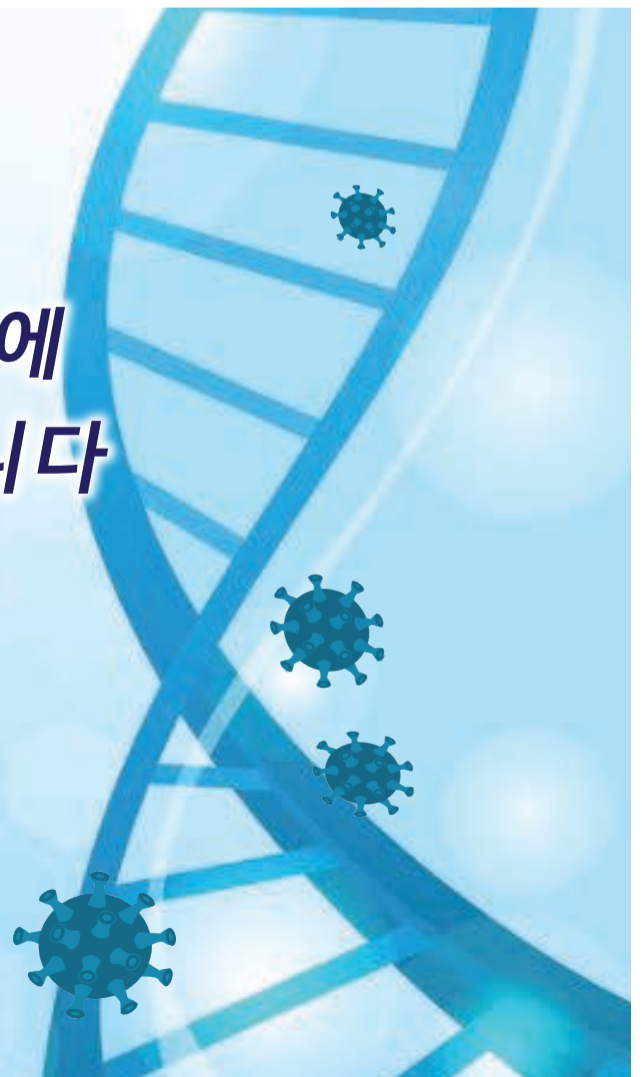
의기총 전병진 회장은 "우리 45만 의료기사들은 의료인에 비해 열악한 노동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위기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직으로서 정부와 함께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주)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개발 및 공급

- 2020년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 1호)
- 2015년 메르스
- 2009년 신종플루



# 보건의료단체협의회

##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답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고 4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료계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2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격론을 멈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수급 체계나 관리, 지원이 현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통과되고 같은 해 10월 시행되기 전까지는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면밀한 파악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체계도 없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수급, 관리,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가지게 됐다. 정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또한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현황, 지역별·의료기관 유형별 활동 현황, 근무형태, 근무여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와 확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을 해야 한다.

작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전무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혼란을 고려해야겠지만,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법 시행 이후 2019년 12월 통과된 관련 예산은 2억 8천 9백만 원 수준으로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예산에는 상담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회의 운영비 정도만 포함되어 법 시행 초기에 체계를 만들기는 역부족이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 보건의료인력법에 해당하는 16개 직능·노동단체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지난해 12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총선공약 요구안 발표, 정당과의 정책협약 등을 통해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설립,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해 왔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100만 명이 넘는 보건의료인력의 기대가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며 "보건의료단체들의 연합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씨젠의료재단, CQI 경진대회 실시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지난 8월 25일 대회의실에서 2019년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지속적 품질관리) 경진대회를 가졌다. 당초 2월에 예정이었던 2019 CQI 경진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일정이 연기돼 금년 하반기에 개최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엄수하여 발표자를 포함한 최소한의 CQI 운영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CQI 경진대회는 검사·행정·영업 등 전 부문을 대상으로 검사 품질향상 및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재단의 품질관리 프로그램이다. 본선에 진출한 9개 팀은 효율적이면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한규섭 대표의료원장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업무 개선점이지만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검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CQI의 의미대로 일련의 활동이 오늘 경진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개선 성과로 쌓아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천종기 이사장은 총평을 통해 "여러분들이 CQI 활동에 만전을 기한 덕분에 품질 향상뿐 아니라 업무효율도 크게 개선되었다"며 "재단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한 CQI 경진대회가 앞으로 재단 구성원 모두에게 '지속적인 품질관리' 인식과 태도를 심어줌으로써 혁신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한진단유전학회, 비대면 라이브 학술대회 성료

대한진단유전학회가 지난 28일 비대면 라이브 생중계로 학술대회를 성료했다.

대한진단유전학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 연자, 좌장만 참석해 온라인 라이브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행사는 본래 5월 말 개최가 예정됐지만, 코로나19로 2번의 연기 끝에 학회 측은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진단유전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엑소좀 기본응용 ▲임상 유전학 및 유전체학의 최신동향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 발전과 임상적용 ▲유전성 질환 치료의 현재와 미래 등 진단유전 분야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다뤘다. 각 세션은 참가자가 실시간 댓글로 질의할 수 있어 강연 발표가 끝날 때마다 Q&A가 활발히 이뤄졌다.

현재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학술대회들이 취소, 연기되는 상황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도 제58회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존 가을에 예정된 분과학회 학술대회도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번 종합학술대회 성료에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 수업

코로나19 감염방지

회원 여러분,

# "진단검사 및 임상병리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영문" 좀 제발 헛갈리지 마세요!!!

글: 구본경(대한임상검사과학회 편집부위원장, 삼성서울병원)

## ※ 배경

임상병리사를 영어로 Clinical Pathologist로 표현한다면, 본의 아니게 임상병리 전문의로 정의되기에 자기 소개, 명함 제작, 논문 작성, 공항 수속 등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03년 우리나라 임상병리 전문의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Laboratory Medicine Physician, Laboratory Medicine Doctor 또는 Specialist of Laboratory Medicine로 번역되고 있다. 단순한 영어 몇 마디가 신분 착오, 수준 탄로 등의 엉뚱한 일(?)을 겪을 수 있기에 기술해 본다.

## 1. Laboratory과 Testing의 차이

### 1) 검사실

Laboratory는 흔히 검사실, 실험실, 연구실, 기공실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병원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의 경우 임상검사(실)의학과, 진단검사(실)의학과, 검사실)의학과가 있다. 실(室)은 공간개념으로 실(室)을 넣거나 빼더라도 전문진료과 명칭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나 공간개념인 검사실과 행위개념인 검사의 경우, 의미전달이나 의사소통에서 혼돈을 줄 수 있다. 검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면 의학검사실, 임상검사실, 진단검사실, 진단의학검사실, 임상병리검사실, 병리검사실, 생리기능검사실 등으로 한글은 실(室), 영어는 Laboratory로 표현해야 한다.

### 2) 검사

검사는 자동화, 반자동, 수동, 키트, 정밀 기법에 따라서 Analysis, Determination, Examination, Measurement, Testing(Tests), Study 등의 영어가 있다. 각종 매체에서 의학검사, 임상검사, 진단검사, 진단의학v검사(찍어쓰기 또는 붙여 쓰기), 진단검사의학v검사(찍어쓰기 또는 붙여 쓰기), 임상병리검사, 병리검사, 핵의학체외검사, 생리기능검사, 분자진단검사, 신속진단검사, 검체검사, 병리진단검사, 영상진단검사, 안과진단검사 등의 검사용어가 소개되고 있다.

### 3) 비교

진단검사를 영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Diagnostic Testing(또는 Diagnostic Tests)라고 해야지 Diagnostic Laboratory하면 안 된다.

## 2. Technician과 Technologist의 차이

### 1) 사전적 용어

① 테크니션과 테크노로지스트의 차이는 교육 수준과 책임이 다르다. ② 테크니션은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며, 테크노로지스트는 다양한 기술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③ 테크니션과 달리 테크노로지스트는 보다 복잡한 작업을 대부분 처리한다.

④ 테크노로지스트는 테크니션보다 큰 역할을 한다. 테크니션은 테크노로지스트 아래에서 지시 감독을 받는다(<http://www.differencebetween.net>). 2) 미국, 캐나다 임상병리사 사례

① 미국 자격인정기관인 ASCP(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athology), AAB(American Association of Bioanalysts), AMT(American Medical Technologists)에서 대학 졸업자는 Medical Technologist(= Clin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전문대학 졸업자는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Clinical Laboratory Technician)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ASCP에서는 2009년 NCA(National Credentialing Agency for Laboratory Personnel) 자격인정기관이 폐사하면서 NCA에서 발급한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와 ASCP의 Medical Technologist를 병합하여 새로운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자격을 제공하고 있다. 채혈사는 고교 졸업자로 Phlebotomy Technician이라 부르며, Scientist/Technologist의 지시 감독 하에 일을 수행한다. ② 캐나다 CSMLS(Canadian Society for Medical Laboratory Science) 자격인정기관의 경우, 전문대학-대학 졸업자는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고교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Medical Laboratory Assistant, Phlebotomy Technician 자격도 있다.

### 3) 비교

테크노로지스트는 학사 학위자, 테크니션은 준학사 학위자가 자격 취득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학력에 따라 테크니션과 테크노로지스트로 구분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https://www.bls.gov/oo/healthcare/home.htm>)에 자료에 따르면 Chemistry Technician이나 Biology Technician 등의 경우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학사 학위)를 요구하기도 한다.

## 3. Medical Technicians와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의 차이

의료기사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Medical Technicians 또는 Medical Technologists로 표현할 것이다. 2017년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https://elaw.klri.re.kr/kor\\_service/main.do](https://elaw.klri.re.kr/kor_service/main.do))에서는 Medical Technologist가 국제적 사전 용어로 미국 자격이나 우리나라 임상병리사 영어 명칭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의료기사 배출 대학이 3년 및 4년으로 구성되는 등 변화가 있었기에 종전 의료기사를 Medical Technicians에서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다.

## 4. Clinical Pathologic Technologist와 Medical Technologist의 차이

임상병리사 Clinical Pathology Technologist의 표현은 임상병리과 소속 검사가 주요 업무인 듯한 자격 명칭이고, 임상병리사 Clinical Pathologic Technologist 표현은 병리검사를 위시한 미생물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등을 포괄 수행하는 자격 명칭으로 이해할 수 있다. Clinical Pathology Technologist와 Clinical Pathologic Technologist의 경우 영어 발음이 너무 흡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협회의 임상병리사 공식영어는 "Medical Technologist"이며 홈페이지(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임상병리사 또는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회원공간) 회원자료실)를 통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네이버, 구글 등의 포털 사이트에도 여러 나라의 명칭 등을 소개해 주고 있다.

“ ABCD ”

# 다시 보는 세계지도: 지도 속 나라들의 실제 크기

글: 최현빈

학교에서 지리를 배울 때, 지도는 곧 세상이었다. 우리나라의 위에 자리한 러시아는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았고, '땅이 넓다'는 중국은 그에 비해 훨씬 작아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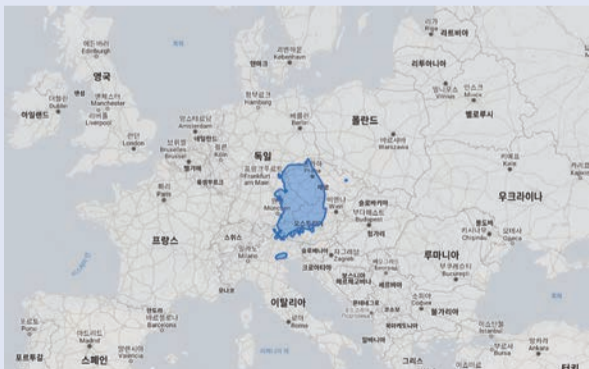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제작됐다. 메르카토르 도법은 구형의 둥근 지구를 평면에 펼치다 보니 극지방으로 갈수록 실제 크기보다 커지는 단점이 있다.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진 세계지도. 극지방의 그린란드가 아프리카 대륙과 크기가 맞먹는다.

국가별 실제 면적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 싶다면 인터넷에 '더트루사이즈'(thetruesize.com)를 검색해 들어가면 된다. 국가명을 검색한 후 다른 국가의 영토 위로 드래그해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도의 왜곡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다, 아니 그렇게 들어 왔다. 남한의 면적은 99,720km<sup>2</sup>로 바로 옆 일본의 1/4 정도의 넓이다. 항상 '땅덩이가 작아서 사람이 중요한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다. 세계에는 총 237개의 나라가 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면적 순위로 109위에 해당한다. 109위면 상위 50% 안에 드는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유럽 한복판에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보다 땅이 작은 나라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면적은 222,482km<sup>2</sup>로 세계 85위에 해당하는 면적이 된다.



유럽 한복판에 우리나라를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가 꽤 커 보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작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계지도에 정말 조그맣게 표시되기 때문이다. 메르카토르 도법은 적도에 가까울수록 정확하지만 극지방으로 갈수록 실제 크기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북쪽의 그린란드와 남극은 실제 크기보다 훨씬 커 보인다.

이러한 메르카토르 도법의 단점을 보완한 게 피터스 도법이다. 피터스 도법은 실제 면적을 반영하기 위해 고위도로 갈수록 위도 간 길이를 주렸다. 이 지도에서는 그린란드와 남극이 매우 작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피터스 도법으로 그려진 세계지도. 그린란드와 남극의 크기가 대폭 줄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이 실제 크기처럼 커졌다.

일각에선 대항해시대에 개발된 메르카토르 도법이 유럽과 북미의 크기는 확대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의 크기는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만들어 서구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금의 세계지도 속 아프리카 대륙은 실제 넓이에 비해 작게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커 보이기 때문에 적도와 통과는 아프리카는 가장 작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크기를 보면 아프리카는 지도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큰 땅이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유럽 국가들을 넣어도 아프리카 대륙을 다 채우지 못한다.

2016년부터 미국 보스턴 공립학교 교실에는 피터스 도법으로 그린 세계지도가 걸렸다. 보스턴 시 교육 당국은 "새로운 지도가 기존의 지도보다 학생들에게 지리적 사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라 확신하며 가짜뉴스와 대안적 사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지도를 교체한 이 시도가 미국 전역 및 전 세계의 교육 현장에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는 평소 지도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큰 대륙이다.(출처: the true size of Africa)

지난 500년간 메르카토르 도법은 지도의 표준이나 다름없었다. 거의 모든 지도책이 메르카토르 도법을 따랐고, 이는 우리 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 붙어있는 지도도 마찬가지다. 이는 단순히 지도 도법의 차이가 아니다.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느끼는 내용에 따라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자기 나라가 실제 크기보다 작은 지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라가 작으니 거기 사는 사람들도 별볼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한국의 영토 넓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들은 건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보다도 작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이 이야기가 작은 영토에 대한 묘한 열등감이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영토의 크기가 작다고 사람들까지 별볼일 없는 건 아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96배가 크지만 중국 사람들이 96배 잘난 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일본이나 미국,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면적으로는 세계 109위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금 진단검사와 방역은 세계 최고의 역량을 자랑했지 않나.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은 객관적으로 작은 나라가 아니고, 영토와 관계 없이 이미 충분한 저력을 보인 나라다.

# 2020년! 인증샷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간단한 감상평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천하여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2020년 9월 28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사진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 [제451호 당첨자]

● **곽민정 회원:** 많제가 임상병리와 다닐 때 흰 가운이 무지 덥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졸업한지 23년이 지난 지금 병원에 근무해보니 임상병리사의 흰 가운은 검체로부터의 보호용만이 아닌 임상병리사로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새로 생긴 서영대학교 학생들이 개개인의 명찰이 달린 가운을 받은 뒤 "임상병리사 윤리 강령"을 낭독하고 박애와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는 기사는 스스로 초심을 생각하게 하는 몽클한 감명 깊은 기사였습니다. 수도권에 새롭게 임상병리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긴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예비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한걸음 나아가는 우리 임상병리사가 되길 바랍니다.



● **송선영 회원:**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저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과제 특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와 건강검진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임상병리사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 회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공유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병리협보를 통해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 접수기한 : **매월 20일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kamtreporter@daum.net)으로 원고와 관련 파일 발송
- 기고문 주제 : 임상병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 정회원 출산 기념품 지급 안내

협회에서는 출산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출산기념품과 협회비 및 면허신고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① **지급품목:** 출산선물(내의), 협회장 인사말&면허신고 안내문
- ② **적용기준:** 출산대상자 및 직계 가족(출산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적용)
- ③ **증빙자료:** 신청서(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접수일자:** 매월 10일 이전
- ⑤ **접수처:** 소속 시도지회 담당자

## 중소병의원 상조 복지사업 안내

협회에서는 중소병의원 회원 대상으로 상조 복지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조금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각 시도지회 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① **대상자:** 2020년 3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회원으로서 직계부모 사망 시 지급
- ② **지급액:** 10만원
- ③ **제출서류:** 경조금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 ④ **접수처:** 소속 시도지회 담당자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 창립 30주년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씨젠의료재단 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genemical.com](http://www.segenemical.com)